



**남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개최**

남원시는 16일, 전북도시간장애인연합회 남원지회와 주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46회 남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비장애인, 장애인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900명이 참석, 당당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되었다. 또한 올해 새로 도입한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과 장애인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기자원이 이어져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남원시립조합(조합장 허운영)에서 후원금 500만원, 더조은위탁(대표 이지호)에서 생수 2,000개 등 지역사회의 기부로 어느 해보다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장애우도 시민도 당연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남원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생태환경교육 학교관리자 연수**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지난 15일 솔티생태관 광장문자센터와 솔티숲 일원에서 관내 유·초·중·고 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2026 지역 맞춤형 생태환경교육 학교관리자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와 생태환경교육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생태적 소양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읍교육지원청은 지역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모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수는 국가생태관광지인 월영습지와 솔티숲 소개를 시작으로 노르딕워킹을 활용한 생태소 탐방, 이끼볼 테라리움 만들기, 자연치유 생태발상 체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표고버섯 재배·수확 체험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생태환경 체험과 함께 지역 생태 관광 체험처와 학교 환경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학교급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생태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 효자4동 지사협, 남원 주천면 방문**

남원시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노환순, 민간위원장 김영근)는 16일, 전주시 효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가영, 민간위원장 유미경)가 역량 강화를 위해 주천면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효자동 지사협의 유미경 위원장과 위원 10명은 주천면 지사협 위원 12명과 서로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협의체의 역할을 되짚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천면 지사협은 우리동네 효자순 도란도란 연세방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자4동 지사협은 즐거운 외식 DAY, 사랑의 김장 나눔, 행복 더한 반찬 나눔 등 총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천면 노환순 공공위원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대안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폭염에 취약한 소외계층에 '사랑의 꾸러미'**

**'전북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 캠페인' 출범**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 한명규)와 함께 16일 전북도청대회의실(4층)에서, '전북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 캠페인' 출범식이 진행됐다. 사랑의 나눔을 연중으로 확대하고자 진행한 이번 행사는 도내 14개 시군에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꾸러미 400개를 만들어 시군 자원봉사센터 및 3개 수행기관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한다. 여름나기 꾸러미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여름이불, 영양제, 비타민, 쌀(현미, 보리), 파스 등 여름철 온열 질환과 영양불균형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포장에 위해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은행,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전북권연본부, 위드하이로 전북영웅시대와 아너소사이어티클럽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전북권연본부와 위드하이로 전북영웅시대에서 모금한 2026년 1호 기부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12월에 집중되던 모금활동을 연중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상시 도울 수 있는 나눔문화로 확대하고자 하며, 출범식 이후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꾸러미 및 나눔행사를 8월 말까지 릴레이로 이어간다. 또한 전북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서도 장애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러미를 전달한다. /01번호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절강 예술직업학원과 '맞손'**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최근, 중국 절강예술직업학원과 전통예술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국 절강 예술직업학원은 예술 인재 양성과 예술교육에 전념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양 기관은 2025년 9월 전통예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해 왔으며, 이번 협약은 스켄텐(施发天) 절강예술직업학원 총장 등 관계자들의 협력과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협약 내용은 △전통예술 관련 학술교류 및 공동 연구 △교원·학생·예술 실무자 등 인적 교류 △예술 기량 교육과 워크숍 운영 △공동 창작 및 공연 가능성 모색 △협력 성과 확산 등이며, 국립민속국악원은 절강 예술직업학원과 한·중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술·교육·공연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중현 원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과 중국의 전통예술이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학술, 교육,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정읍시, 유소년 축구 축제 '1-league' 11월까지**

정읍시가 지역 유소년 200여명이 참여하는 '2026 정읍시 아이리그(1-league)'를 지난 12일 개막해 오는 11월까지 상평인조구장과 풋살장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축구협회가 주관한다. 정읍시는 후원을 받아 유소년 체육 발전을 돕는다. 경기는 8세 이하(U-8), 10세 이하(U-10), 12세 이하(U-12) 연령대로 나뉘어 치러진다. 올해 행사는 단순한 승패나 성적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을 뒀다. 다른 팀 선수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끈끈한 협동심과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대회를 구성했다. 대회 기간에는 문화 축제도 함께 열린다. 참가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 축구를 즐기고 밖에서는 다채로운 놀이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 경주 선진지 견학**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는 16일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 일원에서 '2026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불국사 등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을 견학하며 문화재 보존 및 관광활성화 유지 사례를 살펴봤으며, 환경정화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견학 후에는 지역사회 적용 방안에 대한 토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부동산원 군산, 'REB-ON 골목상권, CHEER UP 도시재생' 캠페인**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지사장 박병춘)는 12일 군산시 월명동 도시재생 홍보골목 일원에서 군산시, 월명동 테마거리 상인회, 월드브런 전북사업본부 등과 함께 REB-ON 골목상권, CHEER UP 도시재생 캠페인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군산시 월명동 골목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ESG 경영 실천과 청렴문화 확산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 월드브런 전북사업본부를 비롯해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익산원광지역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상인 시민 등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로는 △월명동 도시재생 홍보골목 내 '청렴레버' 입간판 설치 △친환경 에코백 및 홍보물 배부 △공공기관 청렴인식 설문조사 △골목상권 이용객 대상 도시재생 홍보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폐현수관을 활용한 친환경 에코백 배부를 통해 자원순환과 탄소저감의 의미를 더했으며, 지역 골목상권과 연계한 현장형 ESG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청렴레버' 입간판 설치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한국부동산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알리고 월명동 테마거리 조성에도 동참했다. 군산시 일회용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공공기



관과 지역사회가 손을 잡고 참여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월명동이 활성화되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장(지사장 박병춘)은 "이번 캠페인은 지역 골목상권을 응원하고 도시재생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청렴문화 확산과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 '농심천심 운동 확산' 결의대회**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이 육성하는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가 영농철을 맞아 농산물 소비 촉진과 나눔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과 함께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는 지난 12일 완주군 화산면에서 전북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봉사단과 함께 '찬찬찬 반찬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천심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미자 전북연합회장을 비롯한 시·군 회장단과 전북농협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양파자까지 200봉을 직접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은 농심천심 운동의 확산을 다짐하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농심천심 운동은 농업의 중요성과 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미자 회장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심천심 운동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북농가주부모임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 실천을 통해 농심천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김제시보건소, 약국용 약포지 지원**

김제시보건소는 16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차질과 이에 따른 종량제부품 공급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약국에 배부할 약포지를 제작·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 시 사용되는 약포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소는 시민들의 의약품 조제 및 복약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약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포지를 자체 제작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약포지에는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내 문구를 함께 삽입해 의약품 조제 지원은 물론 공공심야약국 이용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금동, 정우타일건재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는 16일, 관내 정우타일건재(대표 정한중)를 착한가게 39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정우타일건재는 젊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는 신뢰받는 건축자재 업체로, 유통 단계를 단축해 정품 자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정한중 대표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제품을 제공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따뜻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김병태 동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정우타일건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